가격표의 안과 밖

관심사 심층 독해 - 2026년 10월 25일자 피드 · 2026년 10월 26일 아침

> 어제 19개 피드 중 제외 2개(EerdWord 봇 차단 지속, Leiter Reports 사흘째 접속 거부 - 새 신호 전까지 재시도 없음)를 뺀 17개가 모두 접속되어, 새 글 12편을 전문 독해하고 9편을 골라 3개 주제로 분석했습니다.

일요일이라 글은 적었지만, 어제의 소재들은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 숫자는 무엇을 담고 무엇을 놓치는가. 배럴당 117달러라는 유가에는 전쟁 전망이 새겨져 있고, 국민소득 통계에는 5세기 동안 여성의 모유 수유가 한 번도 잡히지 않았으며, '공동선'이라는 이름으로 시장 가격을 대체하겠다는 기획은 가격이 하던 일을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1. 배럴당 117달러에 새겨진 것 - 유가의 위험 프리미엄 읽기

브렌트유 근월물이 2022년 이후 최고 수준인 배럴당 116~117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Econbrowser). 이 숫자가 왜 중요한가 하면, 유가는 단일 숫자지만 두 가지의 합이기 때문입니다 - 시장이 실제로 예상하는 미래 가격과, 불확실성에 붙는 보험료(위험 프리미엄). Robin Brooks의 분해(블로그 인용)에 따르면 이번 상승분의 대부분은 후자입니다. 근거는 두 가지 - 먼 월물(수년 뒤 인도분) 가격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과거 공급 충격 사례와 비교한 크기. 시장은 공급이 실제로 줄었다기보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이란 전쟁이 '뜨거운' 단계로 돌아갈 가능성에 보험료를 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Brooks는 이 보험료가 과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블로그 주인(Menzie Chinn)의 덧붙임이 공정합니다 - 이번 경험에서는 전쟁 계획과 전략적 의사결정의 예상 밖 실수가 여러 번 있었으니, 시장이 과거보다 큰 파국에 무게를 두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것. 며칠 전 살펴본 비용 상승 논의(10/23-24)의 배경인 이 전쟁이, 유가라는 일일 지표에서는 '확률과 보험료'의 언어로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분석가 모두의 견해이며, 선물 가격 자체는 시장 데이터입니다.

2. '공동선'이라는 이름의 계획은 가격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가

Mariana Mazzucato의 신간 『The Common Good Economy』(출간 확인)에 대한 Julia Cartwright의 혹평(Cafe Hayek 링크 모음)이 어제의 중량급 텍스트입니다. 서평의 논증 구조가 단단해서, 책을 읽지 않고도 쟁점의 지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Mazzucato의 주된 전제 - 주류 경제학이 인간을 고립된 개인으로, 시장을 중립적 기제로 다뤄 집단적 목표를 못 본다 - 를 서평자는 '짚더미 논증'이라고 반박합니다. 경제학이 개인 단위를 보는 이유는 공동체에 대한 적의가 아니라 결정이 실제로 내려지는 단위가 거기이고, 연필 하나도 전부 아는 사람이 없이 수십억 자루가 만들어진다는 Leonard Read의 유명한 예가 보여 주듯 분산된 지식의 조정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서평은 세 개의 '언급되지 않은

것'을 짚습니다 - 하이에크와 미제스의 사회주의 계산 논쟁(가격 없이는 분산 정보를 모을 수 없다는 백 년 된 논증), Arrow의 불가능성 정리(집단적 선호를 일관되게 모으는 절차는 수학적으로 없다), 그리고 공공선택론(관료와 정치인도 유인에 반응하며, 규제 포획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재량권의 산물이라는 분석). 정부를 '최초 투자자'로 세우는 처방이 바로 포획을 낳는 기제라는 지적이 핵심 반박입니다. 이 서평은 한쪽 입장의 글이며 저자의 반론은 듣지 못했지만, 최근 부유세·산업정책 논쟁(10/20, 10/25)을 읽는 한쪽 해상도를 제공합니다. 같은 날 인용문으로 실린 Kirzner(1985)의 한 문장 - 시장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미발견 기회가 '발견되는 경향' 그 자체라는 것 - 가 같은 논점의 고전적 진술입니다.

3. 5세기 동안 통계 밖에 있던 노동 - 모유 수유의 경제적 가치

어제의 학술 소식 중 가장 신선한 것은 경제사 논문입니다. Louis Henderson과 Jane Humphries의 「Valuing five centuries of unpaid breastfeeding in England」(미국국립과학원회보 PNAS 게재 확인)는 무급 모유 수유의 가치를 국민소득 대비로 추정한 첫 장기 계량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국민소득 통계는 시장을 통하지 않는 노동을 잡지 못하는데, 그 통계로 우리는 '과거에 무엇이 경제를 움직였는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논문의 발견 세 가지 - 모유 수유의 상대적 기여는 과거일수록 커서 근대 초기 잉글랜드에서는 도자기·유리 같은 유력 산업, 심지어 공공부문과 견줄 규모였고, '아마도 가장 큰 인적 자본 투자'였다는 것(노동력의 신체·인지 발달을 떠받쳤다는 의미); 그리고 소득이 오를수록 수유율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것. 셋째는 맬서스적 가정(소득이 오르면 생활이 나아져 사망이 준다)의 한 축을 흔듭니다 - 소득 상승이 영아 양육 방식을 바꿨고, 그것은 반드시 개선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며칠 전 본 3대 부 충격 논문(10/24, Clark-Cummins)처럼 잉글랜드 장기 데이터로 현재를 비추는 계보의 연구이고, 같은 날 링크된 Arnold Kling의 지적(실내 배관이 있는 삶과 없는 삶의 차이를 GDP는 과소측정한다)과도 정확히 한 가족입니다 - 측정되는 것과 삶아지는 것의 거리를 묻는 작업들입니다.

짧게 덧붙입니다. ①연준 의장 세 사람(Bernanke·Yellen·Powell)의 일정 2만 건을 분석한 NBER 작업논문(w35913 확인) - 의장들은 기록된 회의의 30% 이상을 연준 내부 경제학자들과 보내고(의사결정에서 참모의 무게), 미디어 접촉은 Bernanke 때부터 늘었으며, Powell은 의회 관계자와의 회의가 두 전임자보다 뚜렷이 많았다고 합니다(정치적 설명의 부담 증가라는 저자들의 해석). ②사이버범죄의 피해가 왜 더 크지 않은가에 대한 Joshua Saxe의 이론(MR 소개) - 온라인 범죄 경제 종사자를 약 72만 명으로 추정하되 90%는 사기 콜센터형이고, 진짜 해커 7만 6천 명의 대부분은 정부 소속이며, 범죄 해커는 수천 명에 공격자의 인건비는 정상 경제 대비 낮다는 노동시장 분석입니다. 상대를 'MIT 출신의 악의 쌍둥이'로 상상하는 방어 쪽 상상력의 오류를 짚습니다. ③Boudreaux의 '가격 폭리' 후속 편지는 어제 논증을 정제합니다 - 아무것도 팔지 않는 Gaston은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셈이므로 경제적으로는 더 큰 폭리업자라는 구성. ④Emergent Ventures India 20기 명단에서는 조로아스터교 8대 사제의 사본 디지털화, 다라비 주민 웰빙 연구, 법정 구금 상한

초과 수감자를 찾는 규칙 기반 시스템이 눈에 들어옵니다. ⑤ Jason Furman의 경제지표 사이트 Econvitals 개설 소식.

독해의 범위를 밝힙니다. EerdWord(봇 차단)와 Leiter Reports(429→403, 새 신호 전까지 재시도 없음)는 정해진 방침대로 수집에서 제외했습니다. 본문 확인은 접속된 17개 피드의 새 글 12편 전문입니다(사진만 있는 Crooked Timber 포토블로그 포함, 이미지는 분석하지 않음). 외부 링크 중 추가 확인한 것은 PNAS 게재 페이지, NBER w35913, Mazzucato 신간 출간 페이지입니다. 유가 분해는 Brooks의 분석, 서평은 Cartwright의 평가, 모유 수유 추정치와 범죄 인구 추정은 각 저자들의 계산임을 본문에 표기했고 각 원문 전체 재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Marginal Revolution은 피드 본문 기준의 조건부 출처입니다.

반드시 읽을 링크

1. Econbrowser, 브렌트유 위험 프리미엄 - https://econbrowser.com/archives/2026/10/front-month-brent-futures-near-2022-peak-level
2. Cafe Hayek, Mazzucato 신간 서평 외 - https://cafehayek.com/2026/10/some-links-3216.html
3. MR, 모유 수유의 경제적 가치 - https://marginalrevolution.com/marginalrevolution/2026/10/facts-about-breastfeeding.html
4. MR, 연준 의장들의 캘린더 - https://marginalrevolution.com/marginalrevolution/2026/10/how-central-bankers-spend-their-time.html